

## 『혼불』의 언어와 탈주의 홀로그램

장 미 영\*

## 차례

- I. 머리말
- II. '서사'라는 매트릭스와 생태학적 독법
- III. 서사 탈주의 기법들
- IV. 재영토화를 위한 홀로그램

## I. 머리말

최명희의 소설 『혼불』은 평자들의 극단적인 찬탄과 비난이라는 정반대의 양면적인 반응을 동시에 이끌어낸 특별한 작품이다. 대개 찬탄의 근거는 작가의 정밀하고 섬세한 언어 구사에서 비롯된다. 이 작품을 극찬한 서지문<sup>1)</sup>은 '작가의 언어구사가 외국어로 오염되어 있는 한국어의 바다에 핀 '연꽃'처럼, 모국어를 통해 우리 민족의 혼을 피워냈을 뿐만 아니라 애절하고 영롱하고 찬란한 문체 또한 동서고금에 걸쳐 이에 필적할 만한 다른 작가가 없다'고 할 정도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남호<sup>2)</sup> 또한 『혼불』은

\* 전주대학교 교수

1) 서지문, "모국어의 바다에 핀 연꽃, 『혼불』", 고영근 외, 『혼불의 언어세계』, 전북대출판부, 2004, pp.15-49.

2) 이남호, "심상대, 이문열, 최명희의 소설", 세계의 문학 1991년 봄호, pp.451-460.

그 문체만으로도 매력적인 작품이며 동시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칭송했다.

반면 김윤식<sup>3)</sup>을 필두로 한 많은 증진연구자들은 이 작품을 산문 형식 미달의 작품으로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김윤식은 작품에 드러난 저자의 박물지적 지식이 '즐거리와 서사적 진행으로서의 역사성 및 성격이 지닌 갈등을 억압하여' 결국 '날개가 커서 날지 못하는 조류'처럼 소설 장르로 볼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이덕화<sup>4)</sup>는 아예 서사 구조의 취약성을 전면에 내세워 그러한 양상의 근거를 여성적 문체의 특징으로 간주하려는 시도를 행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혼불』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상반되는 견해가 마치 뉘비우스의 띠처럼 한 공론장에서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에서 서 있는 많은 평자들 또한 공통적으로 작품 자체에서 발산되는 매력과 흡인력을 인정한다. 이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일반적인 불평은 대체로 '서사가 약하다', 내지 '갈등구조가 약해서 재미가 없다'는 등 주로 소설 구성적인 측면이 핵심을 이룬다. 그런데 그러한 소설 구성적 결함을 불평 어리게 지적하는 독자들도 책을 내팽개치지 않고 독서의 시간 내내 불만을 가득 품으면서도 이 작품을 읽어냈을 뿐만 아니라, 『혼불』이 '재미있는 작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매료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는 복합적인 반응을 보이기까지 한다.

『혼불』이 출간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혼불』은 지속적으로 평자들의 엇갈린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마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한 작품 안에 정교하게 교직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평자들은, 이 작품이 『혼불』이라는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혼(魂), 인간 삶의 가치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면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가치에 있다는 작가의식을 잘 드러내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3) 김윤식, "해켈의 시선에서 본 『혼불』", 전라문화연구소 편,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사, 2001, p.64.

4) 이덕화, "가부장적 의식과 여성, 『혼불』에서의 여성의 운명, 전라문화연구소 편,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사, 2001, pp.266-269.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혼불』에 그려진 작가의 정신세계를 서정섭<sup>5)</sup>은 ‘혼불정신’, ‘민족정신’이라 일컫는가 하면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작품을 ‘한민족의 사상서’로까지 치켜세우고 있다.

본고는 『혼불』에 대한 엇갈린 평가의 근거를 소설 독법의 문제에서 찾고자 한다. 필자는 『혼불』에 대한 독자들의 불만이 현행 우리의 선조적(線條的)인 소설 독법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혼불』에 대한 그간의 독법과 시각을 달리함으로써 이 작품의 창작 방법 및 미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족정신, 혼불정신이라 할 만한 작가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소설 독법의 차원에서 밝히는 데 치중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새로운 소설 읽기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II. ‘서사’라는 매트릭스와 생태학적 독법

『혼불』의 미학적 성과는 아직까지 선명하게 분석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마찬가지로 소설적 결합으로 지적되고 있는 서사 구조의 취약성도 전면적으로 완강하게 부정되지만은 않는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우한용<sup>6)</sup>은 “『혼불』의 언어를 다루는 문학적 방법론이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면서 오히려 ‘대상 텍스트를 다면적으로 읽을 수 있는 독서의 다양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듯 이 작품의 구조와 미학을 드러내고자 하는 여러 연구들이 지칠 줄 모르고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평자들은 아직까지 자신의 연구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채, ‘작가가 밝힌 바, 『혼불』은 미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완결된 구조를 석연하게 분석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다’거나 소설을 배태

5) 서정섭, 『혼불의 배경지와 언어』, 북스힐, 2006.

6) 우한용, “『혼불』을 보는 시각과 해석의 지평-하나의 메타비평적 시도”, 전라문화연구소 편,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사, pp. 3-24.

했던 근대적 시각을 벗어나 무언가 각각의 단편적인 분석들을 '종합과 지양'으로 이끌어낼 새로운 통합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혼불』을 의미 있게 해석해내고 기념비적인 가치를 발굴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그 자체로 뜻 깊은 것이다. 그런데 본고는 이러한 노력들이 혹여 '코끼리를 처음 만져보는 여섯 명의 장님'이라는 우화에 나오는 비유처럼, 각각의 평가마다 '서사'라는 매트릭스의 세계에 갇혀 '서사'의 잣대로만 소설이라는 거대한 장르의 어느 한 부분을 열심히 만져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소설이라는 장르는 연극, 영화, TV드라마, 오페라,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등 다른 장르로의 변주가 용이하다. 그러면서도 소설의 이러한 변주가 결코 식상함이나 싫증을 일으키지 않았음은 공공연하게 입증되어 상식이 된지 오래다. 그간의 논자들은 이러한 소설 변주의 용이성과 가능성의 원천을 '서사'로 규정짓고 서사를 구성하는 성분들, 즉 사건, 행위자, 서술자, 시간, 장소, 시점 등에 주목해왔다.

『혼불』을 분석하는 기준도 '서사'라는 범위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사외적인 측면에 주목한다 해도 '서사'를 근간으로 하여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해석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다분히 서사 중심의 독법으로 소설을 읽어내는 우리의 독서 관습은 서사 구조가 약한 『혼불』을 다른 장르로 쉽게 변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그 결과 『혼불』은 그 흔한 TV드라마로도 변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작품으로 정평이 나 있어 그러한 변주의 시도조차도 망설일 수밖에 없는 문제작으로 남게 되었다.

이처럼 『혼불』은 서사의 이론에 의지하여 쉽게 읽어낼 수 있는 작품이 아니다. 우선 『혼불』에는 서사 전개에 근간으로서의 서사 라인이라 할 만한 직선적인 사건 진행이 미약하다. '서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건이 불연속적이어서 미케발적인 '사건의 논리'로 논할 수도 없으며, 뉴네트적인 서사의 속도라든가 시간성, 공간성에 의지하여 작품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그간의 연구물들을 통해, 이미 『혼불』의 독자들은 이 작품의 실체가 서사

라는 매트릭스의 세계에서는 파악이 가능하지 않음을 스스로 고백해 온 셈이다.

‘서사’라는 매트릭스의 세계에서는 마치 인공지능처럼 머리 속의 뇌만 움직일 뿐, 실감을 체득할 수 있는 몸이 함께 움직이지 못했다. ‘서사’라는 매트릭스도 물론, 오랜 기간 동안 미혹의 현실에 대하여 끈질기게 탐색을 계속해왔다. 그런데 그것은 독자와 저자 간에 목계와 관례로서 공인된 것처럼, 허구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했다.

『혼불』은 ‘서사’라는 매트릭스를 넘어, 우리의 의식이 허구의 현실인 매트릭스와 그것을 포함하는 실제의 현실이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삶의 총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냈다. 즉 이제 우리는 『혼불』과 더불어 소설이라는 매체를 통해 ‘무엇이 현실인가’를 자발적으로 질문하고 ‘무엇이 궁극적 가치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것이다.

김열규가 지적했던 것처럼<sup>7)</sup>, 『혼불』은 한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민속지를 바탕으로 깔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적 자연지가 함께하는 가운데 한 가족의 가족사가 담겨있고 한편으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이야기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이룩된 삶의 생태론이다. 그러기에 『혼불』은 서사 라인(line)을 따라가면서 즐길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 ‘서사’라는 매트릭스와 그곳에서 빠져 나온 현실 세계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있음직한 삶’으로 대변될 수 있는 허구의 틀이 아닌 실제 존재했던 인간의 현실적 삶과 상호소통하는 살아있는 매체가 되도록 해야 진정으로 즐거운 읽기가 가능한 작품이다.

마셜 맥루언식으로 말하면 소설은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체험의 확장이다. 『혼불』은 소설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를 역사, 민속, 자연, 언어, 가족, 공동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작용하는 생태적 체험으로 연결·확장시키려는 의도를 다분히 품고 있다. 따라서 『혼불』이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와 함께 독자들이

7) 김열규, “『혼불』의 생태비평”, 전라문화연구소 편,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사, 2001, pp.29-56.

독서를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사'라는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와 인간의 모든 생체 감각을 동원하는 생태학적 독법이 필요하다.

생태학적 독법이란 생태주의적인 사유의 탐색이라 할 수 있다. 동양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한다면 생태주의적 사유란 협소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인간과 만물이 근원적으로 동일한 존재로서 생명의 울동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사유이다. 결국 생태학적 독법이란 만물이 근원적으로 하나라는 '만물일류(萬物一類)'의 사유를 읽어내고 인간과 사회와 자연이 하나라는 공동체적인 의식을 통해 생(生)과 세계에 대한 정신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다.<sup>8)</sup>

1960년대 후반 물질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던 산업화의 폐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 서구에서도 근본생태주의(deep ecology), 사회생태주의(social ecology) 등의 현대생태철학이 등장하여 동양적 세계관과 유사한 맥락을 지향하였다. 그것은 생물권적 평등주의(bio spherical egalitarianism)에 입각하여 인간을 유기적 전체계(relational total-field) 속에 놓는 생태학적 관념을 추구하는 것이다.

생태철학, 그 중에서도 근본생태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편협한 자기(ego) 정체화에서 출발하여 다른 사람과의 일체감을 터득한 후 자신과 다른 생물종들, 생태계, 더 나아가 생물권 전체와 일체 의식을 경험하게 되는 인간의 정신적 성숙 단계의 최고 경지인 생태학적 자아(ecological self)에 이르는 것이다. 근본생태주의에서는 생태학적 자아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타의 구분이 소멸되어 삼라만상에 대해 진정한 애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간은 만물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거대한 자연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sup>9)</sup>

한편 사회생태주의를 중심으로하는 현대생태철학은 인간에 의해 형성된

8)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들베개, 1999.

9) David Pepper, 이명우 역, 『현대환경론 The Roots of Modern Environmentalism』, 한길사, 1997, 고은미, “혼불의 생태여성주의 담론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제2장 참조.

문화를 자연으로 보며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부터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연문제, 사회문제 등 인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대생태철학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정립을 기반으로 인간의 가치를 고양하고 생명의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성숙된 의식에서 발생한 것이다.<sup>10)</sup>

이와 같은 생태학적 독법으로 소설을 바라보면 등장인물과 그 배경을 구성하는 비인물적인 소재 사이에는 어떠한 존재론적 차이도 없으며 어떠한 가치의 차이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혼불』에서 언뜻언뜻 내비치는 저자의 생태학적 정신세계를 읽어내어 소설과 그 소설을 배태한 사회, 생태주의적 사유간에 어떤 본질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낼 수 있다면 그것은 문학 독서를 통해 정신세계를 고양시키는 근원적이고 깊이 있는 독법이 될 것이다.

### III. 서사 탈주의 기법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 시대의 언어가 미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현실’에서 떼어놓고 있다고 말한다. TV, 영화, 잡지, 광고,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건’의 실제적인 쓸모나 필요성 보다 미디어에 표현된 허구적 이미지로 말미암아 빚어진 욕구 때문에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의, 이른바 교환 가치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소비하는 ‘상품’들과 원래 유래했던 현실 ‘사물’을 연결지을 수 있는 능력이 퇴화해 버렸다.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점점 더 현실과의 직접적인 접촉보다 기호를 통한 이미지만을 소비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모든 감각을 잃어 버려, 기호들이 원래 참고했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허구의 매트릭스 세계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는 것이다.<sup>11)</sup>

10) 앞의 책.

『혼불』은 자꾸만 현실을 대체해 가고 있는 허구의 매트릭스를 벗어나 ‘현실’의 실체를 느끼고 현장의 실감을 체험하게 하는데 전력투구한 작품이다. 시물라크르로 조작된 허구의 매트릭스를 매트릭스로 느끼면서 현실의 제대로된 맛을 보게 하기 위하여, 『혼불』이 취한 방식은 현실의 생태를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혼이 공감할 수 있는 공명의 언어로 복원하는 것이었다. 『혼불』에 실천적으로 드러난 현실 복원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1. 덩어리 이야기(mass story)와 비계화(scaffolding)

소설은 작가가 스토리의 자초지종이나 그 이면을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독자가 스스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빈자리(gap)를 메우는 식의 파노라마적 기법(panoramic technique)<sup>12)</sup>을 통해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의미로 파노라마는 높은 위치에서 묘사된 풍경을 조망함으로써 시각적 쾌락을 자극하는 효과를 자아낸다. 소설에서 말하는 파노라마적 기법이란 광역화된 물리적 배경이나 시간적으로 장시간에 걸친 사건들을 단일한 구절로 선택하고 압축하여 요약하는 서술 기법의 하나이다.

『혼불』에서는 단군신화로부터 한국의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역사로 볼 수 있는 시간과 한반도에서 만주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삶터로 간주할 수 있는 공간 속에서 ‘한민족’이 살아온 삶의 흔적으로 기억해야 마땅한 것들을 스토리라인에 덧대는 독특한 글쓰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혼불』을 한 편의 소설작품으로 만드는 기본적인 의미의 구도는 남원 근처에 사는 매안 이씨 집안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즉 이 작품에서 청암부인, 효원, 강실, 강모, 이기채 등의 이씨 집안사람들은 소설의 맥락을 잡아 주는 윤곽선인 한편 이들을 둘러싼 얽히고설킨 여러 이야기들은 하나의

11) 글렌 예페스 저, 이수영·민병직 역, 『우리는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나-매트릭스의 철학, 매트릭스의 과학』, 굿모닝미디어, 2003, pp.102-116 참조.

12) Percy Lubbock, 송옥 역, 『소설기술론 The Craft of Fiction』, 일조각, 1960, p.62.



건축물이 되는 셈이다.

이씨집안 이야기라는 하나의 건축물을 튼실하게 축조해 가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 작품에서는 한국적인 정서, 혹은 역사 내지 혼으로 이야기 될 수 있는 각양각색의 덩어리 이야기(mass story)<sup>13)</sup>들을 무수히 끌어들이며 비계 설치를 하듯, 이씨 집안 이야기에 덧대어 엮어냈다. 비계란 건축 용어로, 공사장에서 높은 곳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나무나 쇠 파이프 등으로 가로세로 엮어서 만든 시설물이다. 비계는 본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조형해내기 위한 보조적인 방편이지만 본체보다 먼저 설치되기 시작하여 본 건축물을 조형해내는 과정 내내 뿔뿔이 뿔 수 없는 발판의 역할을 한다. 비계는 축조되는 건축물보다 더 확장되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건축물보다 더 큰 부피를 이룬다.<sup>14)</sup>

비계를 형성하고 있는 덩어리 이야기들은 주로 한민족으로서의 집단적 정서로 공유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 범질서, 풍습, 전설, 관례 등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현재에 존재하는 ‘나’와 상상공동체인 민족을 동일시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이미 공인된 소재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 결과는 아무 것에도 기대어 있지 않은 단독자로서의 개체란 실상 허구이고, ‘생각하는 나’나 ‘존재하는 나’는 모두 민족이나 국가,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이러한 덩어리 이야기들은 ‘생각하는 나’인 독자가 ‘존재하는 나’의 의미를 끊임없이 민족 개념과 공명시켜 독자, 작중 스토리라인상의 캐릭터, 덩어리이야기 속의 캐릭터가 서로 끌림을 일으키는 동일시 대상임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이 작품에서는 굳이 민족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한민족’이라는 말에 가슴 뭉클해 하고, 단지 한 민족이라는 이유로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무언가를 생각하며 같은 의미를 읽어내고,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소재화하여 독

13) 본고에서 사용하는 ‘덩어리 이야기(mass story)’라는 표현은 소설의 스토리를 구축하는 서사라인과 구별되면서도 스토리에 달라붙어 있는 이야기라는 의미로, 일부 평자들이 사용하는 ‘삽입서사’라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는 용어이다.

14)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건축용어사전』, 성안당, 2007.

자, 소설이라는 허구, 실제의 민족적 환경을 뒤엎어 놓는 것이다. 작중인물이건 독자건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거나 단독으로 다른 사람의 공명을 일으키지 못한다. 작중인물도 스토리도 독자도 특정한 민족적 감정, 사회적 질서 안에서만 그 모든 것이 구조화되고 의미를 띄게 되는 것이다.

『혼불』을, 언어를 매개로한 한민족의 생태학적 조형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매안 이씨 집안사람들의 이야기를 부피감과 질감 있는 생태적 현실로 조형해내기 위해 『혼불』은 수없이 많은 덩어리 이야기들을 때로는 가로로 때로는 세로로 엮어가면서 즐기차게 현실과 허구가 융합하는 입체적 서사 공간을 만들어낸다.

매안 이씨 집안에 시집 온 효원의 이야기에만도, 효원이 치루는 혼례마당의 묘사며, 청혼서가 오가는 혼례의 과정, 신방에 들기까지의 과정, 신방에 대한 묘사, 상세한 폐백의 절차에 대한 설명(1, 13-45)등이 덧붙여져 있고, 효원의 혼례복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활옷과 화관에 대한 묘사(1, 19), 혼례복을 입는 과정 및 방법과 대습 치마의 쓰임새에 대한 설명(1, 41-43) 등이, 효원이 거처하는 방과 관련해서는 신혼방과 가구, 방안짐에 대한 묘사(1, 173-174) 등이, 심지어는 조왕신께 소원을 비는 효원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조왕신 섬기기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는(5, 27-29) 등, 세세한 묘사와 함께 사료적 설명이 생짜로 첨부되어 있다. 이렇게 이씨집안 이야기를 에두르고 있는 여러 가지 덩어리 이야기들을 평면 혹은 정면이 아닌 입체적 내지 부감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 이야기들은 서사화된 공간에 ‘한민족’으로서의 정서적 공감과 명상적 공명을 부여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작품 전체의 기층을 떠받치는 동시에 서사화된 공간에 생태학적 깊이를 형성해내는 것으로 읽어낼 수 있다.

비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덩어리 이야기들은 때로는 설화의 형태로, 때로는 배경 설명으로, 때로는 한 토막의 에피소드로, 때로는 지극히 자세한 묘사의 형태로, 때로는 숫제 날로 들여놓은 듯한 원천 자료의 형태 등으로 다종다기하게 나타난다. 결국 이씨 집안사람들의 이야기와 나란히 동행하

면서 이와 같이 다양하게 동반된 비계 형태의 이야기들은 『혼불』을 민속지 내지 박물관으로서의 가치가 큰 작품이라는 또는 민족지학적 아카이브라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평가는 『혼불』이 마침내 서사라는 허구의 매트릭스와 실감을 느낄 수 있는 실제의 생태 현실을 잘 연결해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게 덩어리 이야기들은 비계의 역할을 하면서 이씨 집안사람들의 이야기를 민족의 이야기와 한국혼의 이야기로 도장(塗裝)해 낸 것이다.

## 2. 입장감(臨場感)의 추구

언어학자들이 주로 지적하고 있는 『혼불』 언어의 특이성은 한국어의 언중들에 의해 함의되어 도출된 공식적 언어 외에 한국어 언어공동체가 이해합직한 말들을 개인 방언으로 저자가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이는 현실의 현장을 서사 공간에 복원시키면서 서사화된 공간이 현장의 상황성을 최대한 담지해내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어휘들은 민족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정서와 문화의 맥락 속에 배치되면서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되고 있다. 작품의 제목인 ‘혼불’로부터 시작하여 생생한 전라도 사투리를 비롯, 작가가 직접 만들어낸 조어(造語)가 바로 그것이다.

조어의 예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든다면, 전유어를 ‘색색깔’로 빛깔을 맞추어 꼬챙이에 꿰었다(1, 16)거나, 밀화의 구슬들은 ‘일롱거리는’ 촛불빛을 받아(1, 29), 소문이 그네를 ‘근지럽힌다’(1, 103), 풀벌들의 ‘닝닝거리는’ 소리(1, 122), 농약소리가 ‘개갱갱’거리다(1, 114), 살구꽃잎으로 ‘꽃밥’을 차려주던 강실이(1, 136), 삼끝으로 퍼올려지는 흙속에 ‘몽시르한’ 바위가 묻혀 있었다(1, 162), 경대가 장지문 옆 동편 자리에 ‘땡그땡다’(1, 175), 창호지에 ‘버연한’ 새벽빛이 들었다(1, 247) 등이다.<sup>15)</sup>

15) 고영근, “『혼불』의 텍스트성과 한국의 언어문화, 전라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pp.125-132.

이러한 조어들은 현장에 임해서만 느낄 수 있는 오감을 자극하여 생체 감각을 촉발시키기 위해 세심하게 고려된 것이다. 그것은 이미 오래 전에 기호화되어 화석처럼 굳어진 건조한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려한 시도인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일부러 만들어 쓴 개인 조어뿐만 아니라, 고영근, 서정섭 등의 언어학자들이 밝힌 바, 공감각적 어휘들, 의성어, 의태어, 색채어, 시각 지향적 언어, 청각 지향적 언어, 접두사, 첩어 등에서 느낄 수 있는 것 또한 시각을 비롯하여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오감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더 나아가서 같은 감각으로 포착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상과의 거리가 밀착되어 있는지, 근거리인지 중거리인지 원거리인지에 따라 느낌이 다른 것처럼, 『혼불』의 어휘들은 현장에 임해 있는 것과 같이 실감나는 거리감을 담고 있는 한편, 현장의 상황을 정면, 측면, 후면, 때로는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듯한, 또 때로는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듯이 부감을 느끼게끔 하는 전방위적 시점을 모든 사물에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평자들이 흔히 '시적 언어'라고 일컫는, 장단과 가락을 느낄 수 있는 어휘와 지역언어의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는 사투리도 서사를 넘어 현실 현장으로 뻗어나가 독자로서 하여금 생체험의 감각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혼불』의 어휘는 범람하는 허구적 이미지 속에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미디어 시대의 현대 독자들에게 생의 촉각을 바로 서게 함으로써 '현실'의 실제 작동 방식을 직시하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생경한 느낌을 제대로 지각할 수 있는 내면의 속 깊은 성찰을 끄집어내고 있다.

### 3. 대상/배경의 무화(無化)

『혼불』에는 전경화된 대상과 후경화된 배경이 따로 선명하게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서술자와 서술 대상은 빈번하게도 쉽게 융합·동화되어 있다. 서술자는 서술 대상 속에 들어가 희·노·애·락·애·오·욕의 감정을 같이 느끼고 같이 부대끼기까지 한다.

서술자는 전경화된 대상 인물뿐만 아니라 후경화된 자연물과 사물들까지도 자아화 하고 있다. 이로써 서술 대상과 배경은 서로 구분할 수 없도록 무화되고 만다. 이러한 『혼불』 언어의 특징을 서지문은 다음과 같이 독자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증거 해낸다.

최명희는 『혼불』에 등장하는 고결하고 지체 높은 양반부터 지극히 무식하고 투박한 또는 그악스럽고 표독스러운 상민까지 전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부대끼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기도했을 뿐 아니라 울창한 대나무밭의 대나무도 되어보고 액막이연을 만드는 백지장도 되어보고, 만주에서 조국을 애타게 그리는 조선 청년들의 눈을 사로잡은 남만주 의과대학 병원 정원에 한복숭아꽃도 되어보고, 화병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썩어 부글거리는 시궁창에 십 년을 처박히는 나무토막이 되어 보기도 하고, 일본 순사의 총에 맞아 죽어서 거리에서 썩어가는 개의 시신도 되어보고 효원의 외로운 신방을 지키는 기기묘묘한 무늬와 장식물 단 화각버선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박모(薄暮)의 공기도 되어보고 작품에 등장하는 어느 인물, 어떤 사물이 되어보지 않은 것이 없다.<sup>16)</sup>

사물이 자아화되고 서술자와 사물이 융합되어 있는 것처럼 읽히는 것은 작가가 대상을 하나하나의 개체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상황적 맥락을 담지하고 있는 장(field)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불』의 장에서는 대상이 형상적으로만 파악되지 않는다. 서술의 초점이 되는 대상은 배경과 밀착되어 있고 배경은 대상이 지니는 속성들을 마찬가지로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상호 관계 지어져 있다.

대상과 배경의 구분을 무화시킴으로써 『혼불』은 여러 가지 현실의 낯선 경험에 대한 우리 독자들의 정서적인 반응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논리중심적 혹은 화석화된 진부한 은유로 조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동시에 대상과 배경의 긴밀한 소통과 혼합은 독자들의 정서

16) 서지문, “모국어의 바다에 핀 연꽃 『혼불』”, 전라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pp.32-33.

적 신경망들을 생태계 전체로 확장하여 현실과 삶에 대한 그간의 속 좁은 인류의 인식들을 성찰적으로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 IV. 재영토화를 위한 홀로그램

『혼불』은 재영토화의 조형 의지에 의해 구축된 홀로그램이다. 『혼불』의 언어는 '서사'에 기대어 있되, 그 '서사'라는 허구의 매트릭스에서 벗어나,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현실의 이미지들을 취합하여 각종 이데올로기에 의해 오염된 현실에서 자아의 진정성을 탐색한다.

작가 최명희는 『혼불』을 통하여 자아의 진정성이 물질적·정신적·사회적·역사적·민족적인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적 생태 현실과 분리되어 추구될 수 없음을 치밀하게 증거해 냈다. 따라서 『혼불』의 언어는 김열규의 말처럼, 표현하고 재현하는 언어가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직시하고 현실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형하는 언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 속에서 '독립된 자아' 또는 '독자적인 개체' 등 '독자성'을 운운한다는 것은 일종의 허구이다. 현실 속에서 '독립적' 또는 '독자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그렇게 인식하도록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이기도 하다. 현실 속에 있는 모든 개체는 서로 서로를 연결하는 그물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 생태적 존재이다. 『혼불』의 언어는 이러한 생태적 삶에 대한 안목을 제공하면서 어떠한 집착과 개인적 욕망에 가려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성향의 감옥에서 탈주하기를 부추긴다.

●핵심어: 매트릭스, 생태학적 독법, 비계, 무화, 재영토화

<참고문헌>

- 고영근 외, 『혼불의 언어세계』, 전북대출판부, 2004.
- 고원, 『제3의 텍스트: 영화와 소설 또는 정신분석학적 글쓰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고은미, “혼불의 생태여성주의 담론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김병용, 『최명희 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복순 외, 『혼불과 전통문화』, 신아출판사, 2003.
-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 우한용 외,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 2001.
- 서정섭, 『혼불의 배경지와 언어』, 북스힐, 2006.
- 이덕화, 『박경리와 최명희, 두 여성적 글쓰기』, 태학사, 2000.
- 이진경, 『노마디즘』, 1, 2, humanist, 2002.
- 장일구, 『혼불 읽기, 문화 읽기』, 한길사, 1999.
- 장일구, 『혼불의 언어』, 한길사, 2003.
- 최명희, 『혼불』1-10(1-5부), 한길사, 1996.
-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건축용어사전』, 성안당, 2007.
- Deleuze, G. & Guattari, F. *L'ANTI-ŒDIPE: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최명관 역, 『앙띠 오이디푸스』, 민음사, 1994.
- Deleuze, G. & Guattari, F.,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김재인 역, 『천 개의 고원』, 새물결, 2001.
- Deleuze, G., *Difference et Repetition*,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 Guattari, Félix, *L'inconscient machinique*, 윤수종 역, 『기계적 무의식』, 푸른숲, 2003.
- Lubbock, Percy, *The Craft of Fiction*, 송옥 역, 『소설기술론』, 일조각, 1960.

- Mcluhan, H. Marshall, *The Gutenberg Galaxy-the making of typographic man*, 임상원 역, 『구텐베르크 은하계-활자 인간의 형성』,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Pepper, David, *The Roots of Modern Environmentalism*, 이명우 역, 『현대환경론』, 한길사, 1997.
- Yeffeth, Glenn, *Taking the Red Pill*, 이수영·민병직 역, 『우리는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나: 매트릭스의 철학, 매트릭스의 과학』, 굿모닝미디어, 2003.



<Abstract>

The Language of *Honbul* and a fugitive hologram

Jang Mi-young

This study is, by using a cubic reading method, to excavate the value of *Honbul*, a roman written by MyeongHeui Choi, which has not been found by the reading of the lines of the story. By doing this, the study will find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various evaluations from positive to negative among researchers. Furthermore the study tries to find the possibility of multilateral reading in order to make *Honbul* one of active cultural contents aiming at one-source-multi-use.

This study defines a narrative, the basis of the story, as the 'matrix' meaning 'the closed fictional space' and intends an ecological analysis by connecting it with the real world outside the narrative in which the real experience is possible by using the feeling of five senses. The words in *Honbul* is the language of fostering reality not of expressing or representing it.

This novel chooses words which can maximize the feeling of five senses and delivers realism and the actual feeling of reality. Through the words, *Honbul* extends readers' emotional nerves to the entire ecosystem by re-arranging the narrative of the fiction within the context of physical, spiritual, social, historical and tribal reality.

In conclusion, the value *Honbul* is trying to reveal is the fact that

the genuineness of the ego cannot be sought with the separation of multi-lateral and complex ecological reality. Furthermore the language Honbul uses seeks for the level of ecological life. At the same time, it promotes us to escape from selfishness prison which makes us not recognise reality due to the adherence and individual greed.

- Key words: matrix, ecological reading, scaffolding, indifferenzialization, reterritorialization